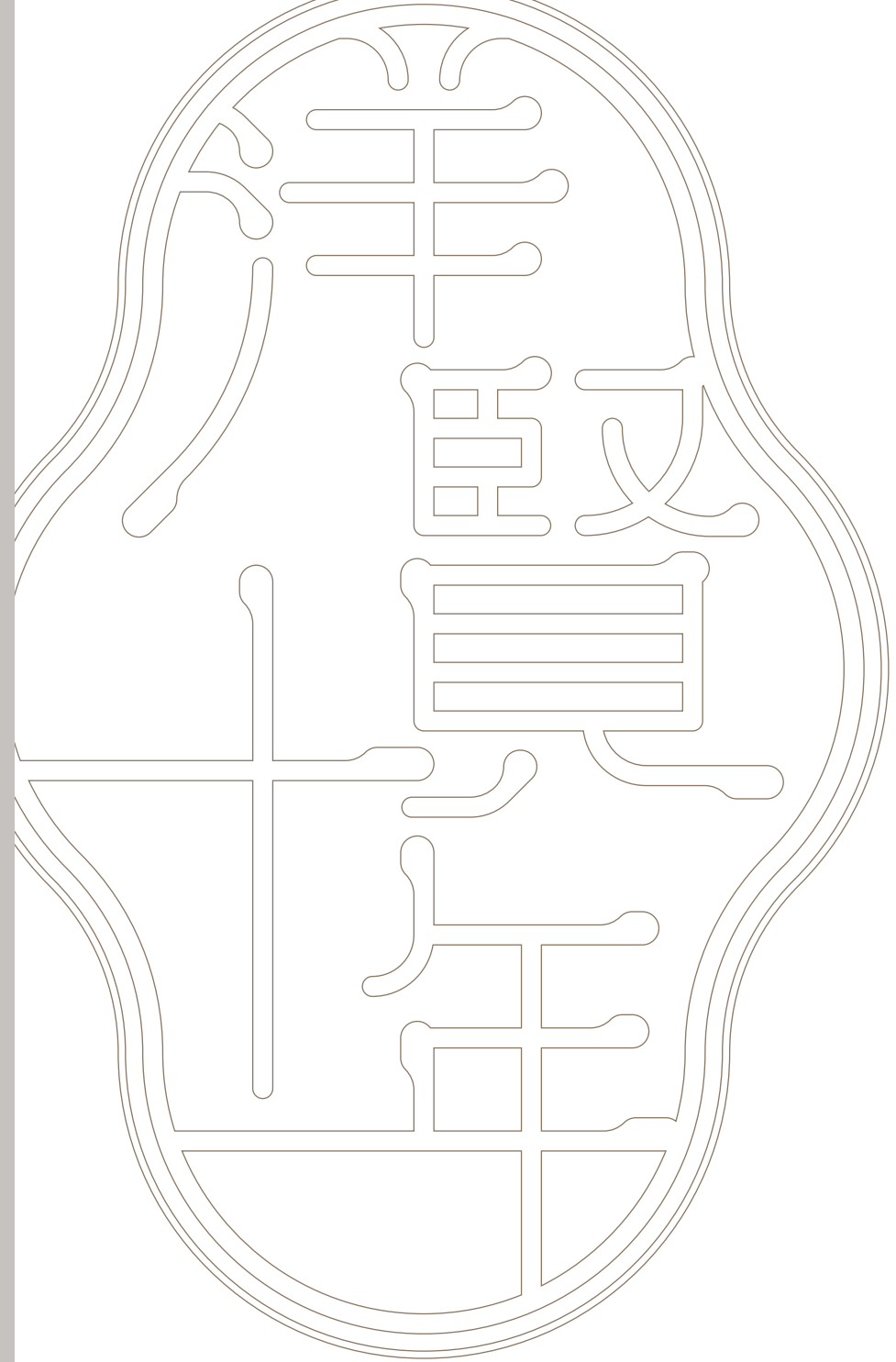




재단법인 양현
2006~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



TABLE OF CONTENTS

PROLOGUE

006 양현재단 10년,
길을 묻다

初心

012 問 1.
양현의 시작,
그 바탕이 된 첫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志向

020 問 2.
다양한 활동들이 향해가는
일관된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行步

028 問 3.
양현의 지난 10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되새겨본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實踐

048 問 4.
‘바다’는 양현에게
어떤 의미이고 대상입니까?
해운·물류 연구지원

056 問 5.
인재를 돌보고 키우는
양현의 철학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학지원

062 問 6.
어린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의료지원

070 問 7.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어떻게 실천해갑니까?
사회복지지원

076 問 8.
문화예술 지원 활동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지원

交感

100 問 9.
더불어 사는 삶의 길에서
양현과 마음을 나눈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理想

116 問 10.
양현의 미래,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까?

EPILOGUE

124 10년을 지나며,
다시 10년을 내다보며

양현재단 10년 _____ 길을 묻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뜻을 품고
마침내 그곳을 지나갈 때
비로소 길이 됩니다.

그렇게 길이 열린 후,
또 다른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그곳을 헤쳐갈 때
길은 더욱 다져져
더 많은 이들의 길이 됩니다.

양현의 길도 그러했습니다.
뜻이 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뒤따랐습니다.
따뜻한 분들의 동행이 더해지면서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야 할 길이 길고 먼 지점에서
10년을 돌아보며
앞날을 내다봅니다.

첫 마음을 되새기며,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고
양현의 길을 가겠습니다.



洋	賢	
	10	年
10	問	
10	答	

初心

초

심



양	현	의
시	작,	
	그	바 탕 이 된
첫	마 음 을	
	알 고	
	싶 습 니 다	

양현재단은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뜻을 바탕으로 합니다.
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은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환원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자
하셨고, 그 뜻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_____

양현재단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바다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밝히는 나눔을 위해 설립된
이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사업들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_____

“





양현의 뜻,



기업을 이끌며,
일 년의 절반 이상을 출장으로
바빠 해외를 오가는 중에도
더불어 사는 삶을 살며
세상에 온기를 더하고 싶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아직도
‘영국 신사’, ‘따뜻한 멘토’,
‘헌신적 리더이자 친구’로
그를 기억합니다.
너무 일찍 떠나버렸지만,
그의 뜻은 세상에 남았습니다.

따뜻한 성품으로, 넓고 어진
바다처럼 살았던 사람.
해운 산업을 몸소 이끌었기에
척박한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자신이 투병하는 중에도
앓고 있는 어린 생명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故 조수호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못다한 ‘나눔’을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양현(洋賢)’은 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양현재단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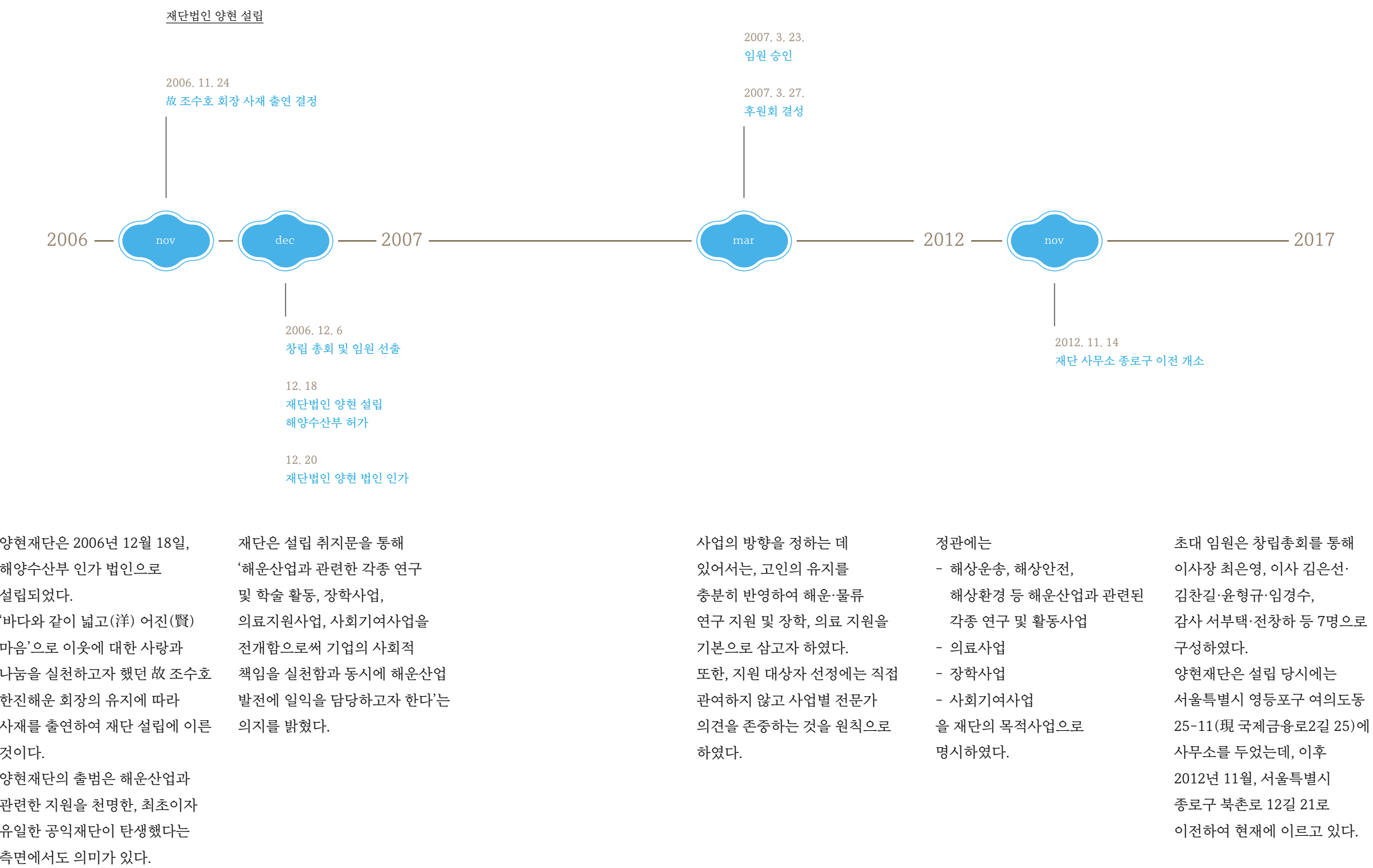
양현재단의 바탕은 ‘양현’의
‘뜻’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셨던
양현 故 조수호 회장의
유지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양현재단의 길은,
다름 아닌 양현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추기보다
어두운 곳을 찾아 비추려 했고,
스스로를 알리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씨앗이 되는 길을
기꺼이 택해왔습니다.

10년을 지나오며 그러했듯,
양현재단은
‘양현’처럼 살며
‘양현’답게 나아갈 것입니다.



재단법인 양현, 첫발을 내딛다



志 向

지

향



問

2

다	양	한							
		활	동	들	이				
		향	해	가	는				
일	관	된							
			방	향	성	을			
		알	고						
		싶	습	니	다				

“

양현재단의 목적사업들은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방향성에서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_____

우리는 목적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때 사회에 꼭 필요한 부문임에도 관심이 덜한 곳이 있지 않나 먼저 살피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자 노력합니다. _____

이를 위해 이사회와 후원회의 의견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여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_____

”

목적사업의 체계

양현재단은 해운·물류 연구 지원을 중심으로 장학지원, 의료지원, 문화예술지원, 사회복지활동으로 목적사업을 체계화하였다. 장학지원 역시 해운물류 관련 학교와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원 활동들은 대부분 지속성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사회적 필요에 귀 기울이는 공익재단으로서, 시대적 요청과 지원의 절실함에 따라 일회성 지원을 유연하게 결정하고 활동에 나선 사례도 수 차례 있었다.



행 보

행

보



問

3

양	현	의								
지	난		10	년						
의	미		있	는		발	자	취	를	
			되	새	겨	본	다	면		
			어	떤						
			일	들	이					
있	었	습	니	까	?					

“

지속적으로 이어갈 재단의 역사에서 10년은 짧은 기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의 중요성이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첫 10년은 물리적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_____

재단의 면모를 갖추고 활동을 구체화하며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함께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시작’이 있었고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나온 하나하나의 활동들을 살펴보니 보람뿐 아니라 사명감이 더욱 커집니다. _____

”



10년의 나눔, 주요 장면과 그 의미

관심과					
지원이		덜	한		곳에
뿌린					
의미		있	는		
씨앗	해운물류연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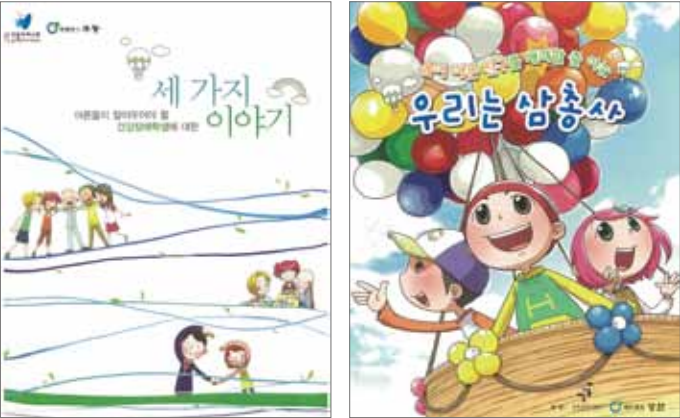
해운·물류와 관련한 지원은 재단 설립 이전부터 故 조수호 회장이 실천해 왔던 일이다. 생전에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총재를 역임하는 등 해운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발전에 기여했던 고인은, 이후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와 함께할 때 해운·물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해운·물류 부문은 그 역할의 중요성이나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미치지 못해, 특히 연구단계에서는 호응과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현재단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연구 과제에 관심을 갖고 살피면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해운·물류 부문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	한		
편견		없	는		
사회를		위	한	,	
인식개선					
책자		발	간		

장 학 지 원



난치병으로 투병하는 학생들에 대한 편견은 앓고 있는 병만큼 큰 고통을 안겨준다. 그래서 질병 치료 못지않게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다. 양현재단은 학생들의 원만한 치료와 학교 복귀를 위한 꿈사랑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교사와 친구들이 부족하기 쉬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책자 발간이다. 인식개선 책자는 ‘어른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야기’, ‘우리는 삼총사’라는 제목으로 2종이 발행, 배포되었다. 내용은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편견을 바로잡고, 친구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생	명	을	
응	원	하	고
희	망	을	
이	어	주	는
그	림		벽

희 망 의 벽

故 조수호 회장은 투병 중 같은 병원의 소아병동 환아들을 볼 때마다 “어른도 이렇게 아픈데 저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걱정하며 안쓰러워했다. 손 잡아주고 과자 하나라도 나눠주며 어린이들을 웃게 해주려고 애썼던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양현재단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을 주된 일로 삼고 있다.

양현재단은 강익중 작가의 작업을 통해 소아병동이 있는 병원에 ‘희망의 벽’을 설치, 기증하고 있다. 3.3인치의 작은 그림 3,000여 점을 모아 만드는 ‘희망의 벽’에는 환아들을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예술을 통한 치유와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양현의 마음이 담겨있다.

- 2010 02 충남대병원
12 명지병원
- 2011 11 제주한라병원
- 2016 11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난	치	성		질	환
의	료		전	문	가
육	성	과		전	파
위	한				를
첫	걸	음			

프 리 셉 터 십 프 로 그 램

- 10년간 98명
해외 연수
- 총7회에 걸쳐
양현-아산 프리셉터로
전국의 의료진
199명 교육, 전파



의술은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부문 인력들의 전문화, 고도화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는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 기여하고자 했던 양현재단의 뜻은 의료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의료진이나 환자들에게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에 지원이 미치지 못하던 부문이었다. 의료 프리셉터 연수는 초기 간호팀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점차 물리치료팀, 방사선팀, 영양팀, 약제팀, 임상연구원팀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선진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득하고 돌아온 지원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씨앗이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Horizontes, 2005 Part 1 of 3 by Abraham Cruzvillegas

예	술	을		
통	한			
사	회		기	여

양 현 미 술 상

우리 미술계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예술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 미술상인 ‘양현미술상’을 제정하였다.

양현미술상은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 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한편,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술계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예술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다. 공식적 행사 석상과 비공식적 교류를 통해 한국 미술과 미술계를 소개하고, 시상식과 함께 수상 작가의 강연 시간을 마련하여 국제 미술의 첨단에 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양현미술상은 10년에 이르는 동안, 경제적 상황의 부침이나 외부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임없이 이어져 지금까지 10회, 10명의 수상작가를 발표하며 공신력을 다져가고 있다.



2007. 12. 5.

인하대병원 환아들을 위한 희망 나눔 행사 후원
소아암 병실을 방문해 선물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술쇼 및
아카펠라 공연 등을 마련하여
환아들에게 웃음을 선물하였다.



2007. 3. 27.

양현재단 후원회 결성

다양한 분야 18명의 인사들이 자발적 참여와
실천의 뜻을 다지며 후원회를 결성하였다. 사회봉사활동 참여뿐 아니라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2008. 10. 10.

‘제1회 양현미술상 시상식’ 및
‘양현아트렉처’ 개최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의 취지로
제정된 양현미술상.
첫 수상자인 카메론 제이미가
시상식 후 아트렉처로 대중들과
만났다.

2008. 3. 28.

‘선박금융 Sustainable Growth 전략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체결
국내 해운물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딜로이트 컨설팅과
‘해운금융 발전 및 해운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금융제도 도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mar

dec 2008 mar

oct

2009. 7. 16.

기능성 게임 개발 MOU 체결

서울아산병원, 엔씨소프트와 함께 인지장애
아동의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게임 '인지니' 개발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출시를 지원했다.

2009. 9. 5.

서울아산병원
'양현 미술치료 교실'
후원

2009. 10. 24.

인하대병원
'양현 미술치료 교실'
후원



2010. 2. 26.

충남대병원 '희망의 벽' 후원

강익중 작가와 함께,
투병중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하여
3천여 점의 작은 그림들로 이루어진
희망의 벽을 설치하였다.

2010. 11. 24.

사단법인 연우
'이동한방진료버스'
기증



2010. 11. 20.

양천구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2009

jul

sep

oct

2010

feb

nov



2011. 1. 2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후원



2011. 8. 17.
성로원 아기집, 꿈나무마을 아동 초청
‘가루야 가루야’ 문화체험

2011. 6. 29.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사랑의 밥퍼 봉사
최은영 이사장과 후원회원 20여 명이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독거 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하여 정성을 담아 점심 식사를 준비, 배식하고
무료 급식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2012. 4. 19.
STC-K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증서 전달
해운물류학 석사과정 신입생 중 5기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12. 8. 13.
국제백신연구소 ‘인플루엔자 통합 상황 분석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금 전달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기빙파트너’로서 2008년부터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2012. 6. 5.
소아암 환아를 위한 무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울아산병원, 엔씨소프트와 함께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에 대한 공포심을 덜고
투병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돕는 ‘소아암알기: 아루미와 함께하는 소아암알기’와
치료 일정을 관리해 주는 ‘소아암수첩’을 개발, 출시하였다.



jan
2011

jun

aug

2012

apr

jun

aug



2013. 1. 22.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2013. 8. 7.
‘꿈을 키우는 집’ 아동 초청 ‘종이발자국’
문화체험 후원



2013. 7. 31.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 산하 ‘꿈사랑학교’ 후원금 전달
투병으로 학교 생활이 힘든 백혈병, 소아암 등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꿈사랑학교를 후원해오고 있다.



2014. 9. 3.
국제백신연구소 어린이 대상 공중보건 및
나눔교육 ‘키키(KiKi) 프로그램’ 후원
어린이들에게 전염성 질환의 예방법을
교육하고,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키키(Kids Help Kids) 프로그램을
후원하였다.



2014. 8. 1.
혜심원 아동 초청 전통공예체험
복지시설 아동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체험 등을 함께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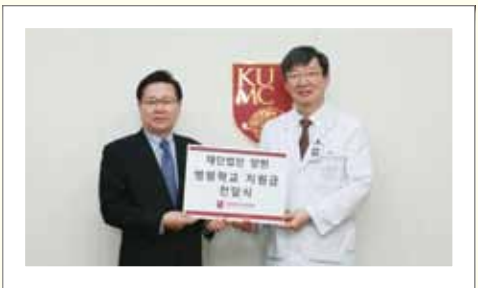
2015. 5. 23.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랑 키우고 나눔 전하는 양현 Day'
행사 후원



2015. 12. 9.
제6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실시
12월 9일~10일, 서울아산병원



2016. 11. 25.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희망의 벽'
설치 후원
강익중 작가가 작업하고 양현재단이 후원하는
희망의 벽. 그 네 번째 작품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설치되었다.



2017. 5. 29.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놀이치료 후원



2016. 11. 12.
태초먹거리 학교 100회 강연 후원



2017. 5. 20.
신망원 아동 초청 '미래알은 반짝' 문화체험 후원

實 踐

실

천



問

4

‘	바	다	’	는						
	양	현	에	게						
어	떤		의	미	이	고				
	대	상								
			입	니	까	?				

“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의 터전이자 출발점입니다. _____

해운·물류 연구에 대한 지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나 이익 추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뒷받침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_____

해운·물류 연구 지원사업은 양현재단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부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_____

”



해운·물류 연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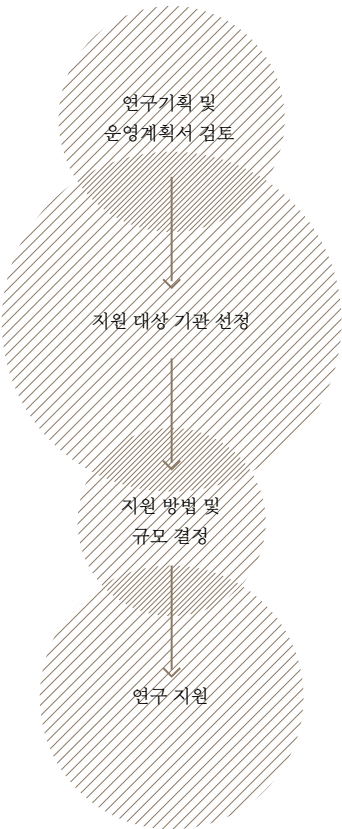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일보다 오히려 시급하고 중대한 일들이 있다. 해운·물류 부문의 연구는 미래를 내다보며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 임해야 하는 일이기에 가시적 성과나 사회적 관심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 지원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양현재단은 국내 해운물류 산업의 발전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연구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재단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2007년 ‘물류혁신네트워킹 연구소’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구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지원 대상

해운, 물류, 해양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술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인정되거나 해양수산부의 추천을 받은 기관.

연구지원 절차



1.
2. 3.
4.

1.
2010. 9. 15.
The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gistics and
Maritime Systems



2.
2010. 1. 4.
한국해양대학교
발전기금 전달

3.
2009. 7. 9.
북극해 연구결과
발표회



4.
2007. 11. 1.
물류혁신
네트워킹연구소
개소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소 물류산업체의 수요 지향적 기술 연구, 차세대 물류 비즈니스 모델 연구, 국가적인 물류 혁신 현안 조사 연구, 항만 물류 네트워킹, 항만 해운 국제 마케팅 비즈니스 연구 수행 ▶ 2007. 10. ~2010. 9. ★ 물류혁신네트워킹연구소	기후 변화에 따른 북극해 변화와 대응 방안 북극항로 활용의 경제성 분석 및 자원교역·운송시장 참여방안 연구 및 단행본 출판 ▶ 2008. 8. 26~2009. 6. 3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선박금융 Sustainable Growth 전략 수립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동북아 선박금융중심 실현전략 수립 연구 ▶ 2008. 2. 18~4. 18 ★ 딜로이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해양인력 육성 ▶ 2009. 1. ~2014. 3.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국적선사의 친환경 관리정책에 대한 영향과 대응 전략 선진국의 Green Port 전략과 이용선사에 대한 요구 조건 등을 연구하여 국내 항만관리 및 개발정책에 반영될 내용과 국적선사의 장단기적 대응전략과 친환경 항만이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지원 ▶ 2010. 5. 1~11. 30 ★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선·화주 상생협력 수익모델 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 선·화주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 기반 강화 및 예측 가능한 경영체제 구축 연구 ▶ 2010. 7. 1~12. 3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한국선주협회 선박온실가스규제 대응전략 수립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온실가스규제안 조선/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한 국가 및 업계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 효과적 협상을 위한 계획 수립 ▶ 2010. 9. 27~11. 30 ★ DNV (노르웨이 선급/ 싱가포르 법인과 연구계약)	북극해 화물운송시장 진출 방안 극해 화물운송시장 진출 방안 연구 ▶ 2011. 4. 19~2012. 2. ★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해기품질평가 IMO보고서 작성 대한민국 해기품질평가 정보를 국·영문 보고서로 작성 연구 ▶ 2011. 5.16~2011. 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아세안 단일해운시장 이행계획 수립 아세안 단일해운시장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2011. 5. 9~2013. 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흑해지역 해운, 항만 개발 진출 방안 연구 흑해지역 해운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사업 발굴 수립 ▶ 2013. 10 ~ 2013. 12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북극항로의 지속적인 활용 방안 ▶ 2013. 10. 28 ★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선박 발주체계 개선 검토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노후화에 따른 연안선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 대책 마련 등 ▶ 2014. 12. 30 ~ 2015. 6. 2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해양원격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선원의 선내 건강관리(업종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 2015. 1. 2 ~ 2015. 7. 2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중 카페리 항로의 안전관리 및 발전전략 연구 한중 카페리 항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 ▶ 2015. 2. 16 ~ 2015. 7. 15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연구 지원 사례 1.

기	후		변	화	에				
따	른		북	극	해		변	화	와
대	응		방	안					

지구 온난화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정치, 경제 이슈를 탄생시켰다. 빙하가 녹으면서 그 동안 얼어있던 북극해가 새로운 항로로 열린 것이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극의 석유와 천연자원에 주목하며 북극해와 관련한 변화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북극해 연안국들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에서도 탐사선을 보내는 등 북극해를 둘러싼 영토·영해·항로·자원 등에 대한 분쟁과 주도권 경쟁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우리 나라는 당시 축적된 연구나 준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당시, 극지 탐사를 위한



최초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등 남극을 비롯한 북극해 연구의 활동성을 넓히는데 관심을 기울이긴 했어도 이에 대한 공감대나 연구 참여도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양현재단은, 2006년 북극해 변화와 관련 연구 제안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세계 각국이 북극해 활용을 먼 훗날이 아닌 당면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듯 우리도 북극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 수립을 통해 북극을 둘러싼 세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북극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연구가 시급하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2008년부터 이루어진 본 연구는, ❶ 북극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북극 항로 활용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해상운송시장 참여방안, 북극해 자원개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며 ❷ 특히 북극 항로의 개방에 대비한 항로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양현재단은, 북극 항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부산항이 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북극해가 기존의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를 대신하여 아시아와 유럽, 태평양과 대서양을 최단 코스로 이어주는 중요한 무역로로서 그 활용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연구는 국내 북극해 관련 연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역할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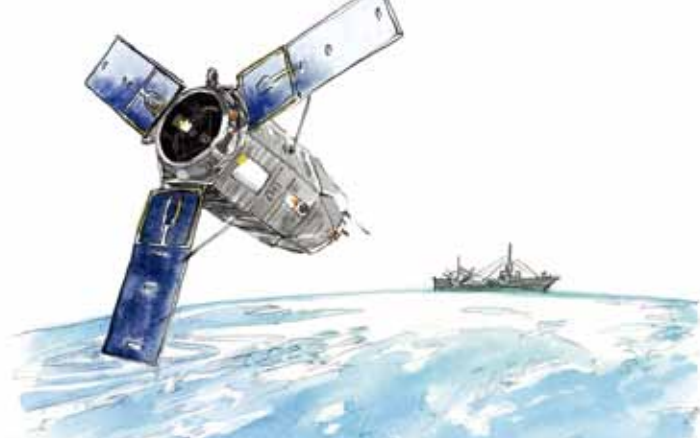
또한 연구 성과는 해운업계나 정부의 북극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열람,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출판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공유와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주요 연구 지원 사례 2.

해	양			
원	격			
의	료	지	원	

긴 시간을 바다 위에서 보내야 하는 원양 선원 등 해양산업 종사자들은 일상적으로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이기 쉽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조난 등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단적 피해와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의료 지원 체계가 눈부신 진화를 이루어온 것에 비하면 해양 의료 지원 체계는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해상 안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높이는 큰 계기가 되었다.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체계적 대비 및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온 나라가 아프게 체험했을 때, 양현재단은 해양 원격 의료지원에 대한 연구를 발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1월 시작된 연구는 6개월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어서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후속 작업들이 가속화되었다. 2016년 4월에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관계 기관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과정과 성과를 발표, 공유하는 설명회를 거쳤고, 이후 실제로 선박들에 적용하여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랜 기간 정체되어 왔던 것과 달리 해양원격의료지원 시스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미 상당 수의 선박의 선원들이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선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처치 및 치료 등을 원격으로 지도하고 있다.

첫걸음은 쉽지 않다. 그러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누군가 손잡아 주면 힘을 내어 일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지원자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

필요하지만 비어있는 부분, 나중에 하려고 미뤘다가는 때를 놓쳐버리는 것들, 이러한 부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 해양원격 의료지원 연구에 대한 양현재단의 관점과 지원 또한 이러한 약속을 실행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인	재	를									
돌	보	고		키	우	는					
		양	현	의							
		철	학	과		방	법	은			
무	엇	입	니	까	?						



우선 첫 번째는 양현재단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운·물류 관련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_____

해운·물류·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좋은 방법은 해당 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편, 오랜 기간의 투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눔’이 ‘가르침’ 이상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학생 및 해양계 대학 지원

- 1.
- 2.
3. 4.

양현재단은 해운·물류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선원 자녀 및 해양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국해양 대학과 목포해양대학 등 해양계 대학에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양현재단이 출연한 기금은 선박 적하 관리 시뮬레이터실 개실, 개선 등 교육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다.



1.
2016. 1. 15.
선원자녀
양현 장학금 수여식
2.
2010. 3. 24.
네델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장학금 수여식
3.
2009. 12. 22.
목포해양대학교 장학금
전달식
4.
2009. 7. 21
한국해양대학교
장학금 전달식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꿈사랑학교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규율을 익히는 학령기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 의지와 상관없이 중대 질병으로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환아들이 있다. 긴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하는 학생들은 병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뿐 아니라 고립감과 불안함을 함께 느낀다.

양현재단은 환아들이 치료에 전념하면서도 학습과 사회화 습득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꿈사랑학교를 통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온라인 수업과 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문예창작대회 문집과 인식개선책자 발행 등을 돕고 있다.



1.
2010. 6. 4.
꿈사랑학교 수련회
2차 감염의 우려로 병원이나 집을 벗어나기 힘든 학생들에게 체험 활동, 레크레이션, 해양 활동 등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야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병상에서 벗어난 친구들이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며 배려와 사회성을 배우는 경험을 갖는 시간이기도 하다.
- 2.3.
2016. 1. 29.
문예창작대회 시상식 및 수료식
문예창작대회는, 투병 생활로 학습 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인정받음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 양현재단은 행사와 함께 문집 발간까지 지원한다.



- 1.
- 2.
- 3.



민 영 이 의 소 원

엄	마	랑		
봉	하	마	을	에
가	고			
싶	어	요		

2008.6

골육종을 앓으며 오랜 병원 생활을 했던 민영이의 소원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이었다. 특히 민영이는 자신을 간병하느라 거의 외출을 하지 못했던 엄마와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했다. ‘혹시나’ 하는, 그러나 간절한 바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에 민영이의 상황과 소원을 남겼다. 얼마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때 민영이는 건강 상태가

나빠져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른 후, 드디어 민영이는 엄마, 동생과 함께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었다. 봉하마을에서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지의 승리를 기원 하며’라는 메시지 사인으로 민영이를 격려해 주셨다. 민영이는 봉하마을 방문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작은 음악회도 즐기고,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꿈사랑학교도 방문하였다. 이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꿈꾸던 소원이 이루어진 벅찬 하루였다.

재 희 의 소 원

가	수	가
되	고	
싶	어	요

2009.12

재희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노래 부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왔다.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났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재희의 노래 실력은 학교 수련회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선생님은 재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주영훈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주영훈 씨는 직접 곡을 작사·작곡하여 녹음까지 도와 주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해에 사는 재희가 서울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던 날, 주영훈 씨 녹음실을 방문하였다. 재희를 반갑게 맞아준 주영훈 씨는, 녹음할 노래를 소개해 주었다. 경쾌한 멜로디에, 가사는 재희가 문예창작대회에 작품으로 냈던 글을 참고한 것이었다. 가수 나옴이 씨에게 노래 지도를 받고 녹음실로 들어간 재희는 긴장한 빛을 보이긴 했지만 녹음 내내 행복한 모습이었다. 재희의 노래는 CD에 담겨 앨범으로 제작되었고, 가수의 꿈은 그렇게 실현되었다.

★ 재희의 이야기는 SBS 송년 특집프로그램 ‘박재동의 사랑스케치’에 방영되었다.



어	린	이	들	의				
	아	픔	을					
덜	어	주	고		싶	어	하	는
		마	음,					
그		원	천	은				
		무	엇	입	니	까	?	

故 조수호 회장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고 학교에 다닐 나이에 난치병과 싸우는 어린 생명들을 안쓰러워하며 돕고 싶어했던 그 뜻이 우리의 의료지원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양현재단의 의료지원 활동은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도움의 차원을 넘어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치성질환
전문가
육성 지원

양현재단은 소아암 등 희귀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난치성 질환 관련 분야의 국내 전문 의료진 육성 지원으로, 의료진들에게 해외 선진 의료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2007년부터 매년 서울아산 병원에서 엄격한 심사로 간호사 및 약제, 보건직 의료진들을 선발하였고, 10년간 총 98명이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 위스콘신 암센터 및 클리블랜드 등 해외 협력 기관에서 연수를 마쳤다. 또한, 이들은 국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난치성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강좌와 1:2 맞춤 실습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프리셉터십’을 진행하며 배움과 경험을 전파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1.
2015. 12. 9.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행사
2.
2011. 11. 30.
제2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3.
2008. 8. 25.
아산병원 암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후원금 전달식

1. 2.
3.



연수 현황

	2008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3기
연수생	총 11명	총 12명	총 15명
연수기관	DFCI	DFCI, UWCC, Vodder코스, MGH 등	DFCI, UWCCC, Aflea Hospital, UAMC, Cleveland Clinic & Mayo Clinic, Liverpool, St. Jude, Foothills, Vodder 코스
연수 후 활동	● 제1기 연수보고회 2009. 12. 31	● 제2기 연수 보고회 2010. 1. 22	● 서울아산병원 ‘암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원내 프리셉터십 2010. 5. 24~28 ● 제1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2010. 12. 1~3

2011년 제4기	2012년 제5기	2013년 제 6기	2014년 제 7기	2015년 제 8기
총 12명	총 12명	총 12명	총 10명	총 16명
DFCI, UWCCC, 보스톤 MGH, Manchester Post Basic Dysphagia Course, Emory Univ. 등	DFCI, UWCCC, 보스톤 MGH, Columbia University or Rusk Institute of rehabilitation medicine, Boston Children's Hospital 등	DFCI, UWCCC, Johns Hopkins Hospital,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등	Stanford Hospital & Clinics, Mayo Clinic, Ronald Reagan UCLA Medical Center, Johns Hopkins 등	AFOC, UHN, NYP, MSKCC 등
● 제2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2011. 11. 30~12. 2	● 제3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2012. 11. 7~9, 2일간	● 제4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2013. 11. 20~21	● 제5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2014. 12. 10~11	● 제6회 양현-아산 난치성질환 프리셉터십 2015. 12. 9~10



1. 2.
- 3.

‘희망의 벽’ 프로젝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작은 그림. 그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벽을 만들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희망의 벽’은 직접적 의료 서비스는 아니지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작가가 작업하는 ‘희망의 벽’ 프로젝트는 작품의 수집부터 진행, 설치에 여러 분야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병원의 의료진은 물론이고 환아들과 가족,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한다. 적게는 3~4천에서, 많게는 한번에 14만 점의 작품이 붙기도 하는데, 시작부터 설치까지는 대개 6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희망의 벽’은 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곳의 병원에 세워졌고, 이후에도 어린이 병동이 있는 종합병원에 지속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1.
2016. 11.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희망의 벽.
2.
2010. 12. 15.
명지병원 희망의벽
제막식.
3.
2010. 10. 26.
양현재단 희망의 벽
제작 자원봉사.

환아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 양현 미술치료 교실

환아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실질적 의료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또한 양현이 관심을 기울여온 부문이다. 인하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양현미술치료 교실은 예술 창작 활동과 상담을 통해 소아암 환아 및 발달장애 아동 등의 재활과 치유를 돕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중인 발달장애아 및 소아암 환아를 대상으로 소아암 환아의 경우 총 24회기, 발달장애아의 경우 총 48회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또는 의료진이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치료 여부를 결정한 후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미술치료사는 보호자와 수시 상담을 통해 치료 상황을 이해시키며 전화와 메일로 출결 관리를 한다. 또한 매회기가 끝날 때마다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환아의 상황에 대해 피드백 하고 4회기마다 미술치료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2010. 9. 13.
서울아산병원
양현미술치료교실
전시회.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을 위한 앱 개발

양현재단은 서울아산병원·엔씨소프트와 함께,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에 대한 공포심을 덜고 투병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아이패드용 앱 ‘아루미와 함께 하는 소아암 알기’와 치료 일정을 관리해주는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용 앱 ‘소아암 수첩’을 개발하는 등, 환아와 환아 가족을 위해 다각도의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하여 양현재단이 제작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울아산병원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3명과 전문간호사 3명, 엔씨소프트의 개발 인원 약 15명이 함께하였다.

‘아루미와 함께하는 소아암 알기’ 앱

만 4세~9세 소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단부터 입원, 치료, 치료 후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환아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생소한 병원 환경을 재미있게 안내하여 환아들이 앱을 통해 암이 무엇인지, 항암 치료가 무엇인지, 치료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재미있게 접하면서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병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소아암수첩’ 앱

환아 보호자들을 위한 치료 일정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검사 결과 관리, 치료 일정, 투약 일정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치료 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항암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1. **2012. 6. 5.**
소아암 환아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발표회
2. **2009. 7. 16.**
기능성 게임개발
MOU 체결식
3. **2009. 1. 21.**
소아암 게임 개발
공모전 시상식



- 1.
- 2.
- 3.

국제백신연구소 후원 및 이동 한방진료 차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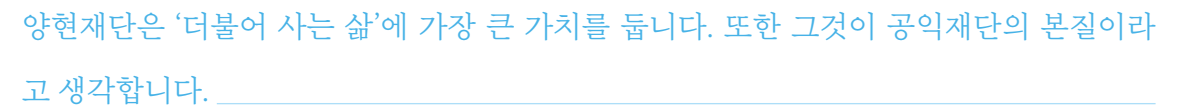
양현재단은 2008년부터 국제백신연구소를 지원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과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한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찾아 가는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무료 이동 한방진료 차량을 운행하여 취약 계층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반갑다 연우야’ 의료봉사단의 이동 차량 제작을 지원하였다.

1. **2009. 8. 12.**
국제백신연구소
IVI 방문
2. **2011. 3. 6.**
이동 한방진료버스
첫진료
3. **2010. 11. 24.**
무료 이동 한방진료
차량 기증





이	웃	과					
		함	께	하	는		
		나	눔	,			
어	떻	게					
실	천	해	갑	니	까	?	



우리는 거창한 일, 어려운 일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과 지역을 먼저 살피려 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쁘고 뿌듯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_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 나눔의 첫걸음이다.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해 온 양현재단은
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독거 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장을 나누며,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 환아와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이고 진정 어린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1. 2. 4.
3.

1.
2014. 12. 16.
보라매병원 소아병동
위문행사

2.
2010. 12. 7.
아동보육시설
‘은혜의 집’ 후원금 전달식

3.
2009. 11. 18.
혜명양로원 방문

4.
2008. 4. 21
청량리 다일공동체
밤퍼봉사활동



복지시설 아동 초청 체험 활동

어린이들은 누구나 새로운 경험과 신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양현재단은 복지시설의 아동들을 초청하여 들꽃수목원 견학, 난타공연 체험, 요트체험, 전통문화 체험 등 흥미롭고 즐거운 문화체험 활동의 시간들을 마련해 왔다. 한편 체험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바비큐 파티 등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며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였다.

1. 2. 3.
1. **2014. 5. 31.**
은평천사원 도예 체험 행사
2. **2012. 5. 19.**
상록보육원 초청
들꽃수목원 견학
3. **2011. 5. 14.**
명진들꽃사랑마을 어린이
초청 행사

2017. 2. 7.
양현재단 후원회 신년하례회

양현재단 후원회

양현재단 후원회는 2007년 3월에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자발적 참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양현재단이 펼쳐온 의료지원 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정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양현재단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 역할을 하면서 양현재단이 공익재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고 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양현미술상은,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양현미술상은 ‘수상자 발표’, ‘시상식’이라는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의 성장을 돕고,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세계 미술 무대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_____

또한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이들이 예술의 사회적 순기능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洋臣年

양현미술상

제정

양현미술상은 국적, 장르의 구분 없이 매년 1명의 수상작가를 선정, 시상한다. 심사 기준의 공정성과 상의 권위를 위해 매년 우수한 예술적 잠재력과 활발한 작품활동을 보여주는 중견작가들 중에서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큐레이터들로 구성된 추천위원단의 추천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세계적인 미술관의 디렉터급 심사위원단이 수상작가를 최종 선정한다.



수상 작가들은 시상식 당일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러한 아트렉처는 대중들이 세계적 작가의 작품세계를 직접 접하고 듣는 기회가 되고 있다.

양현미술상 트로피는 대형 선박에 함께 실리는 구조선에서 사용되는 스크류(선박 추진 프로펠러)를 본 떠 디자인되었다.



수상자 지원 방법

- 총 1억 원의 상금
- 수상 후 3년 이내에 작가가 원하는 시기에 작가가 원하는 전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

양현미술상

심사위원

제 1,2,3회 (2008~2010)

카스퍼 쾨니히 (Kasper König)
독일 루드비히미술관 관장

캐시 할브라이시 (Kathy Halbreich)
뉴욕 현대미술관 부관장



제 4,5,6회 (2011~2013)

후미오 난조 (Fumio Nanjo)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

필립 베른 (Philippe Vergne)
뉴욕 디아미젤단 디렉터



제 7,8,9회 (2014~2016)

크리스 더컨 (Chris Dercon)
영국 테이트 모던 관장

아담 D. 와인버그 (Adam D. Weinberg)
미국 휘트니 미술관 관장



제 10,11,12회 (2017~2019)

바르토메우 마리 (Bartomeu Mari)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리차드 암스트롱 (Richard Armstrong)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 관장



양현미술상 수상자

제1회

2008

카메론 제이미
Cameron Jamie,
United States



제2회

2009

이자 겐즈켄
Isa Genzken,
Germany



제3회

2010

이주요
Jewyo Rhii,
Korea



제4회

2011

아크람 자타리
Akram Zaatari,
Lebanon



제5회

2012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
Abraham
Cruzvillegas,
Mexico



제6회

2013

리바니
노이언슈원더
Rivane
Neuenschwander,
Brazil



제7회

2014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Thailand



제8회

2015

오토봉 앙캉가
Otobong Nkanga,
Nigeria



제9회

2016

히토 슈타이얼
Hito Steyerl,
Germany



제10회

2017

카테르 아티아
Kader Attia,
France



© Christian Danner

양현미술상 수상작가 및 작품

Isa Genzken

제2회 (2009) 수상작가
이자 겐즈켄 (Isa Genzken, Germany)

“

상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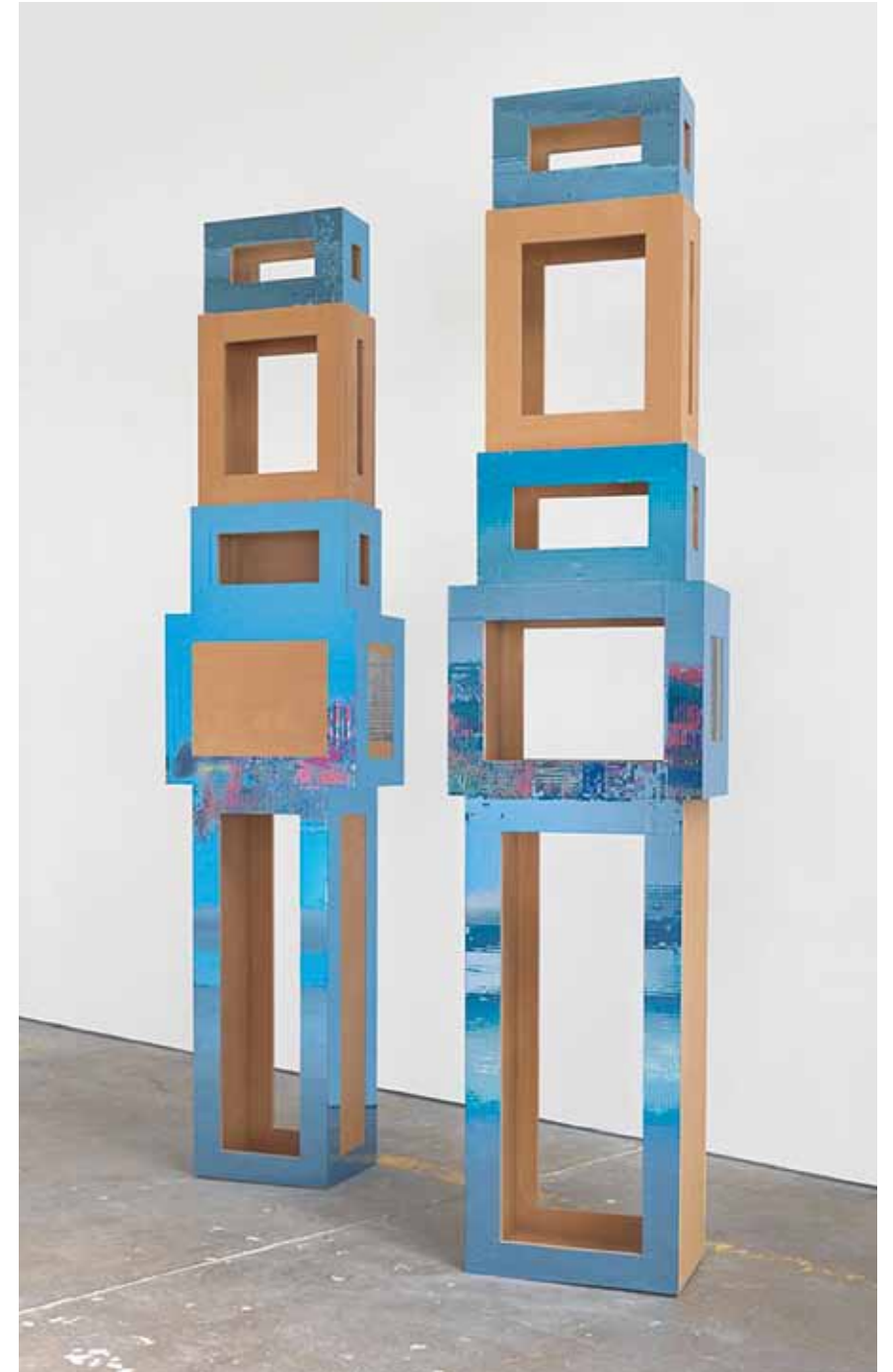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 있어서 이런 선박 스크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



Untitled, 2015
2 parts, mirror foil,
photographs, printed
paper, MDF.
each 338 x 70 x 44 cm
overall installation approx.
338 x 209,6 x 70,2 cm.
© Isa Genzken / BILD-
KUNST, Bonn - SACK,
Seoul, 2017



Jewyo Rhii

제3회 (2010) 수상작가
이주요 (Jewyo Rhii, Korea)

“

양현재단, 그리고 저를 발견해주신 캐시와 캐스퍼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역대 어시스턴트들에게도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칼에
베이고, 톱날이 튼 작업 현장에 같이 있어준 분들이니까요.

작가로 살면 안으로만 쌓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드러나는 것은 작품인데, 제 작품은 어려운 것이라 마음을
닫고 일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Typewriter-Recitation
(낭송하는 타자기), 2012
Installation view,
Heidelberg Kunstverein,
Germany.



Typewriter-Recitation
(낭송하는 타자기), 2012
Installation detail-printed
poem on wall,
Heidelberg Kunstverein,
Germany.



Akram Zaatari

제4회 (2011) 수상작가
아크람 자타리 (Akram Zaatari, Lebanon)

“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미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놀랐는데,

게다가 제가 살고 있는 레바논의 동쪽, 동양에서 온 상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넓구나’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Letter to A Refusing Pilot, 2013
Video installation at the Lebanese Pavilion in Venice.
photo credit: Marco Milan.

Abraham Cruzvillegas

제5회 (2012) 수상작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 (Abraham Cruzvillegas, Mexico)

“

저와 함께 작업해 주셨던 많은 아티스트들, 큐레이터,
재단, 심사위원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신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못 온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Tsunami Disaster, 2017
Installation view at Maison
Ginza Hermès, 2017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okyo, 2017.
Nacása & Partners Inc
Abraham Cruzvillegas
(1968) Tsunami
Disaster, 2017
Mixed media
Variable dimensions
AC13314



Empty Lot, 2015
Installation view at TATE
Modern, 2015.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TE Modern,
London, 2016.
Hyundai Commission
2015. Photo by Andrew
Dunkley.



Rivane Neuenschwander

제6회(2013) 수상작가
리바니 노이언슈원더 (Rivane Neuenschwander, Brazil)

“

재단에 계신 분들, 심사위원, 그리고 작품을 소개해준 미셸,
함께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주는 양현미술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수상이 더욱 기쁩니다.

”



The Name of Fear |
Rio de Janeiro
(Monster/Stranger), 2017
Rivane Neuenschwander
in collaboration with Guto
Carvalhoneto.
Photo: Pedro Agilson.

Apichatpong Weerasethakul

제7회(2014) 수상작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Thailand)

“

전세계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양현재단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런 재단에서 저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다들 귀신이다.’ 우리는 아마 서로에게 정신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일깨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상은, 이제는 가능성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하나의 알림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두려움의 귀신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



Phantoms of Nabua, 2009
Part of Primitive project.
Credits: Courtesy
of Apichatpong
Weerasethakul.



Ashes, 2012
Credits: Courtesy
of Apichatpong
Weerasethakul.

Otobong Nkanga

제8회 (2015) 수상작가
오토봉 엔캉가 (Otobong Nkanga, Nigeria)

“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자긍심을 느끼고, 아프리카 대륙을, 나이지리아를 대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 작품 세계가 동양에서, 한국에서도 인정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연결되는 것에 기쁘고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양현미술상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하며 예술에 대한 질문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저는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더 정밀하고 정확한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게으름 부리지 않고 더 부지런하게 작품에 임하겠습니다.

”



From Where I Stand: Constellation, 2015 - 2016
Performance - Duration 45 minutes.
Otobong Nkanga / MATRIX 260 at the UC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May 11, 2016. Commissioned by the UC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Photo: Charlie Villyard.



Taste of a Stone - 1kq, 2016
Installation view, Nottingham Contemporary, Nottingham, UK.
Photo by Stuart Whipps.



The Encounter That Took a Part of Me, 2016
Installation view, Nottingham Contemporary, Nottingham, UK.
Photo by Stuart Whipps.



Hito Steyerl

제9회 (2016) 수상작가
히토 슈타이얼 (Hito Steyerl, Germany)

“

양현미술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제 작업이 인정받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수상은 향후 제가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Factory of the Sun, 2015
Single channel high definition video, environment,
luminescent LE grid, beach chairs
23 minutes
Image CC 4.0 Hito Steyerl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drew Kreps
Gallery, New York

Installation view,
Venice Biennale
German Pavilion, 2015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Andrew Kreps
Gallery, New York
Photography by Manuel Reinartz

交感

교

감

102 양현재단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보내 온 메시지 |

110 지원을 통해 또 다른 나눔을 전파하고 있는 분들이 보내 온 편지



더	불	어		사	는				
	삶	의		길	에	서			
양	현	과							
마	음	을		나	눈		분	들	의
				이	야	기	를		
	든	고		싶	습	니	다		

“

10년 동안 펼쳐온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보람과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분,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분들의 소식은 반갑고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_____

무엇보다 기쁜 것은 그분들 또한 나눔의 전파자가 되어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보람이 쌓이고 커져가는 만큼 사회도 밝아지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_____

”



양현재단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보내 온 메시지

강	의	중
작	가	

의 료 지 원 사 업 , ‘ 회 망 의 벽 ’ 프 로 젝 트
66 쪽 참조

우리가 알고 있던 벽은 공간을 나누지만, ‘희망의 벽’은 너와 나를 이어주고 치료합니다.

‘희망의 벽’의 시초는, 1999년 12월, 경기도 파주 헤이리의 별관에서 작업한 ‘십만의 꿈’이라는 작업입니다. 1km의 비닐하우스에 남북한 어린이들의 그림 10만 장을 설치하는 일이었는데, 남북 아이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가 된 한반도를 미리 가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 그림 5만 장은 끝내 오지 않았고 대신 비닐하우스 반을 ‘기다림의 벽’으로 남겨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남북 어린이들의 꿈은 세계 어린이들의 꿈으로 확장 되었습니다. ‘희망의 벽’은 세상의 혼돈과 상처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놀라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전세계에서 모인 3만 4천 점의 꿈의 벽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 같은 시각 뉴욕 다운타운의 세계무역센터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모아진 어린이들의 꿈은 이라크와 예멘,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 ‘희망의 벽’으로 세워져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백신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18년 전, 뽕뽕 얼어붙은 겨울 별관에 심어졌던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생명의 벽’을 쌓는 일을 양현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양현재단과의 만남으로 ‘희망의 벽’은 또 다른 진화를 하였습니다. 중심에는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병 중인 어린이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벽’은 어린이가 주인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잇는 작업이 ‘십만의 꿈’이었다면 아픈 어린이 들의 마음과 몸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희망의 벽’입니다.

너와 네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들의 아픈 상처는 조금씩 치료됩니다. 우리가 바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져 있다고 아는 순간, 우리들의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병	익
꿈	사	랑
학	교	교
장		장

장 학 지 원 사 업 , 건 강 장 애 학 생 지 원
59 쪽 참조



2007년 ‘양현’이라는, 처음 듣는 이름의 재단 실무자가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소아암 등 아픈 학생들이 치료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원이나 집에서 화상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는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라고는 해도 조그마한 사무실을 빌려 쓰는 보잘 것 없는 외형에 불과했는데, 양현재단의 담당자는 진지하게 여러 사항들을 물어보고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셨습니다.

며칠 후, 양현재단에서 우리 학교를 후원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매우 놀랐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정도 학교의 사정을 살펴 잡아주셨는데, 서울에서 이사장님을 처음 뵈던 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픔 속에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셨습니다. 또 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 후원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3개월 동안 전국 기관들을 찾아 다녔는데 그 중 꿈사랑학교가 재단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하셨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양현재단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일부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종결하는 것과 달리 지속적인 관심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백혈병, 소아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은 환자인 학생이나 가족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 동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학업과 일상 생활이 어려워 집니다. 때문에 원만한 치료와 함께 심리적 안정과 학교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양현재단이 이러한



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양현재단이라는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사랑학교의 학습 활동은 교육부와 현재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정규 학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꿈사랑학교의 학습 결과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 치료 기간 동안에도 학업에 열심히 임한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양현재단이 함께해주셔서 아픈 학생들을 위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웅대한 사랑의 뜻이 앞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져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김	은	숙	
후	원	회	원

사 회 복 지 활 동 , 양 현 재 단 후 원 회
75 쪽 참조

양현재단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후원회원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최은영 이사장과는 성심학교 동창으로 학창 시절부터 봉사 활동을 배우고 함께 해왔습니다. 이사장님 부부는 나눔의 생활을 실천해오셔서, 주변에서는 고인의 성품과 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재단이 설립되었으니 당연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후원회는 형식적으로 결성되었다기보다는 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회원들은, 평소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고도 합니다. 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 방향과 내용 등을 제안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간 3~4회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활동 내용에 따라 회원들 저마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리, 구매, 장소 섭외 등 도움을 제공 하기도 합니다. 실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느끼고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절실한 것인가를 목격하기도 하지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가족들, 특히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서서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가정에도 자연스럽게 나눔의 철학이 스며드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이	숙	경
박	사	

Senior Research Curator, Tate

문 화 예 술 지 원 사 업 , 양 현 미 술 상
78 쪽 참조

저는 양현미술상의 심사위원 및 추천위원들이 이 상의
제정 동기와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작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현재단은 예술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현대 미술에 대한 지식과
국제 미술계에서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공유하여 미술상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양현미술상은 제정 초기부터 글로벌 미술상으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한국의 재단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국경
없이 펼쳐지고 있는 국제 현대미술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미,
서유럽 중심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여준 기존의 미술상들과
달리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미술에 일찌감치 주목한 점도 눈에 띕니다.
양현미술상은 독자적 특징과 장점으로 점차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장이 되었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작가들 대신 가장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할 시기인 중견 작가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이 상의 파급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상금 외에 향후 전시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을 지원한다는 점도 양현미술상이 갖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대표적 미술관 관장들로
구성된 역대 심사위원들의 면모 또한 좋은 수상 작가들을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던
큐레이터들도 모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인데,
양현미술상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으로 높아서 그에 걸맞는
수준의 작가를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양현미술상은 한국의 미술상으로서 세계
미술계에서도 영향력이 큰 시상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과 미술 전문가들의 존경을 받고 미술을
통해 한국과 세계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이 미술상이,
앞으로도 예술적으로 탁월한 작가들의 국제적 성장에 큰
역할을 지속하고 한국의 미술계와 미술 애호가들에게도 국제
미술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국

해

양

소

년

단

연

맹

보내주신 후원금은 우리 단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과 전국민을 상대로 해양사상 고취와 진취적 미래 해양국가 건설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회 교육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문, 항만 수산, 조선, 해양과학, 해양스포츠, 해양환경, 해양기능 등의 상식과 교육 훈련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용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양소년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해양강국의 주역이 될 해양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 1. 환규호 총재



은

평

천

사

원

보내주신 후원금은 ‘아동복지센터’ 내에 치료실을 설치하고 업무비를 충당하기에 족한 성금으로, 큰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시설 건물 내에 지역 아동들의 심신 건강과 정서 계발에 이바지할 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자부심을 안겨주셨습니다. 따스한 후원의 빛은, 자칫하면 탈산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밝은 빛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앞날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우수한 사회복지사, 심리치료교사, 간호교사 등을 갖추고 아동들의 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내일을 진로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역할이 크게 그 빛을 발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크신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2010. 9. 28. 조규환 원장



혜

명

보

육

원

준비해 주신 가을 소풍, 아이들이 무척이나 행복해했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 옆엔 항상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함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고비를 만났을 때, 함께했던 가을 소풍의 추억이 그 고비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0. 11. 3. 최혜은 간호사



理想心

이

상

118 양현 10년, 그 이후에도 '양현'답게 | 119 최은영 이사장 인터뷰



問

10

양	현	의		미	래	,
	어	떤		모	습	을
꿈	꾸	고				
있	습	니	까	?		

“

양현재단은 초심을 잃지 않고 본래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적 요구에 의한 변화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를 위한 변화’로 새로움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_____

스스로 씨앗이 되고자 자처했던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든든해지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퍼뜨리며 장차 숲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꿈꿉니다. _____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더욱 튼실해지는 나무처럼, 언제나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재단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_____

”



양현 10년,
그
이후에도
‘양현’답게

10주년을 맞은 양현재단은 ‘변화’나 ‘새로움’을 선언하기보다는 성찰을 통해 나아가길 모색하고 있다. 1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함께해 준 인연들은 양현의 역사에서 무엇보다 소중하다.

함께 의지하고 손잡았던 이웃들,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격려하며 지원해준 후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며 진심을 다해
봉사할 때 양현은 세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현은 특별한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 빛나는 일보다는 필요한 일을
자연스럽게 지속해 나가면서 베풀고
나누며 내일을 향해 흘러가려 한다.

양	현	의							
어	제	,	오	늘	,	내	일		
	한	결	같	은					
마	음	으	로						
본	분	에							
충	실	하	겠	습	니	다			



동아일보 제공

故 조수호 회장님은 평소 나눔의 철학을 강조하며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이라 ‘은퇴 후 함께 이웃을 도우며 살자’,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자’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학창 시절부터 봉사의 기회가 많아 나눔의 생활이 습관화 되어있어 그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故 조수호 회장님은 투병 중 한때 호전되어 희망을
가지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오래 가지 못하자 앞날을 예견하고 준비하시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며 수 차례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 중 해운 해양 물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난치병 어린이들에 대한 보살핌, 당신이 이루지 못한 화가의 꿈을 반영한 미술을 통한 사회 기여가 주된 유지였습니다. 그 뜻에 따라 故 조수호 회장님의 주식을 출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양현은 목적사업을 설정하고 실천할 때, 재단
홍보나 기업 경영에 그 활동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단 활동의 본질이 아니기에 철저히
구별합니다.

연구 지원이나 난치성 질환 전문 의료 지원 등은
밖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양현미술상의 경우에도, 우리는 국내 미술계에서
영향력을 가지려 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후원자’일 뿐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양현재단은 앞으로도 애써 새로워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스스로를 드러내 알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눈과 귀,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해 열어두겠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잘 해온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방향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왔듯, 앞으로도
거창하게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더불어 사는 것에 본질적 가치를 두고 이웃들과
함께 하는 데 의미를 둘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이 되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와
인연 맺은 많은 이들에게 그들 스스로 또 다른
씨앗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눔의 보람이고
힘입니다.

나눔은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나눔의 씨앗이
널리 전달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가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또 10년이 지난다 해도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우리의 바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난치성 질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른 의료진들에게 자신들이
배워온 것을 강연과 실습 등을 통해 전파합니다.
양현미술상 수상자들은 스스로도 성장하지만 다른
예술가들에게,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연구자들과 장학생들도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게
됩니다.

이처럼 나눔은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나눔의 씨앗이
널리 전달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가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길로 들어서서
씨앗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인연 맺은 분들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준
좋은 이웃’으로 양현재단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또 10년이
지난다 해도 ‘바다와 같이 넓고 어진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우리의 바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양현의 약속이자
나아갈 길입니다.



故 조수호 회장이 남긴 마지막 필적.
유지의 실천을 당부한 메시지이자 재단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되새기며 간직하고 있다.

Epilogue

10년을 지나며, _____ 다시 10년을 내다보며

길이 멀다고
주저하지 않고,

길이 험하다고
좌절하지 않고,

길이 없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길을 찾고, 만들고,
길과 길을 연결하면서

양현이 가고자 했던 길,
양현이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헤쳐가겠습니다.

양현재단과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現 임원



이사장
최은영
(주)유수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이사
김영문
(주)금풍 회장



이사
김은선
보령제약(주) 회장



이사
이주현
미술평론가



이사
임경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정교수 및 주임교수,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장



감사
이원우
독일 Eurogate Group 한국대표,
(주)WW Corp. 대표이사



감사
전창하
대주회계법인 이사

前 임원

이사
김찬길
2006. 11. 30~
2010. 3. 31

이사
윤형규
2006. 11. 30~
2009. 4. 8

감사
서부택
2006. 11. 30 ~
2008. 6. 15

감사
박형근
2008. 6. 16~
2015. 6. 30

양현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현재단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로 도와주신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싸이버로지텍, (주)유수홀딩스,
(주)한진해운, (주)유수에스엠,
(주)에이치라인해운, (주)유수로지스틱스,
(주)대한항공, (주)한진, MTC(Marine Terminals Corporation),
양현재단 후원회 등
양현재단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洋賢 10年 10問 10答

발행일

2017년 10월 20일

발행

재단법인 양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2길 21(가회동 11-131)
tel. 02-6716-4900 | fax. 02-747-6411

기획 및 디자인

(주)와우이미지 | 02-723-1534

인쇄

Raon C&P

